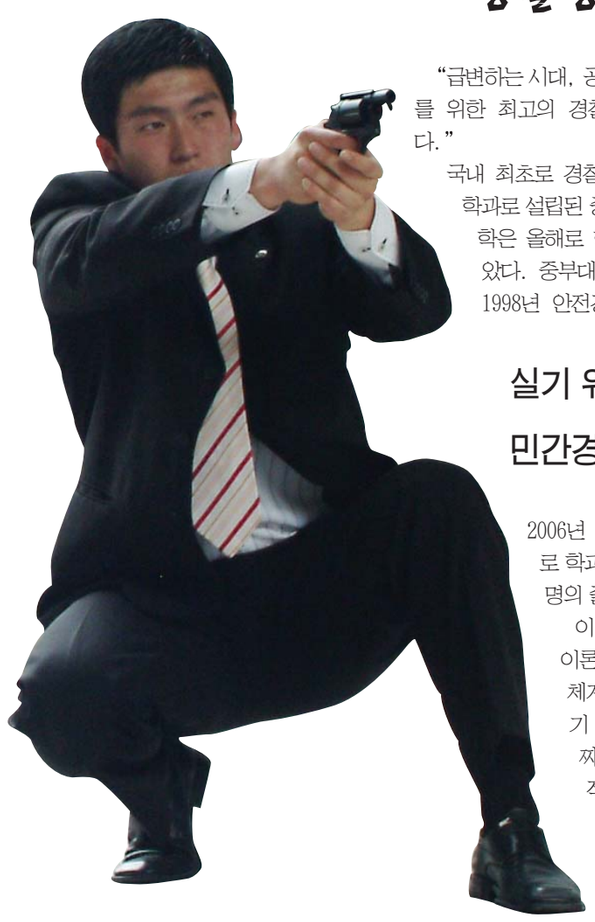
차별화된 학사프로그램 … 취업 문 '활짝'

중부대학교

최근 세계 경기침체와 맞물려 내수부진이 계속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각 대학들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 높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회사를 찾아 보기 힘들고, 설령 사원을 뽑는다고 해도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대학들도 이제 신입생 유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취업 전략에 모두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들의 취업난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이에 충청일보에서는 2009 대학입시를 앞두고 충청권의 취업 유망학과를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지원전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경찰경호학과



실기 위주 수업으로 취업 후 적응 걱정 '뚝'

민간경비 수요 급증…전문인력 부족 '인기'

"급변하는 시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고의 경찰경호 인력을 양성한다."

국내 최초로 경찰 및 경호전문 특성화 학과로 설립된 중부대학교 경찰경호대학은 올해로 학과개설 10주년을 맞았다. 중부대 경찰경호학과는 지난 1998년 안전경호학과로 개설된 뒤 2006년 현재의 경찰경호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고 총 2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학과는 특히 단편적인 이론에 치우친 강의보다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실기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대학 졸업 후나 직장 취업 후 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독특한 교육프로그램은 곧바로 취업률로 나타나 이 학과의 취업률은 지난 몇 년동안 100%를 상회할 정도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대학 졸업생들의 최근 취업률이 50%도 안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히 놀라운 취업률이다.

공공치안이 주를 이룬 과거와 달리 최근엔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해 향후 최고의 유망학과로 큰 인기를 얻는 것도 큰 장점. 지난 2004년도 국가자격증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서는 전국 최다수 합격률을 기록할 정도로 이 학과 학생들 대부분은 2~3개의 경호관련 자격증을 지닐 정도이다.

특히 이 학과는 ▲화랑도 경호시범단 ▲경비지도사 자격증 대비반 ▲경찰경호무도단 ▲경찰시험 준비반 등 학생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1대1 상담을 통해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경차경호무도단(고교재학시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대상)에 선발된 신입생은 입학시 트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고, 입학시 희망자 전원이 호텔식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

전기전자공학과



중부대 전자공학과는 현장 중심 교육의 일환으로 일년에 두 번씩 현장 실습 및 특별강연을시행하고 산업체 및 연구소와의 인턴십, 인력교류 협정에 힘쓰고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센터 건립…새 지평 열어

연구생 제도 장학금·발전 혜택 '일석이조'

중부대 전기전자공학과는 대전에 위치한 한전 전력연구원, 창원의 전기연구소, 각 지역의 발전사들과 원자력연구소 등과의 연계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어 아시아권에서는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센터를 건립해 명실상부 우리나라 전기전자공학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이 학과는 2002년 3월 정보통신대학 정보공학부 전기전자전공으로 설립,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내실있는 학사프로그램으로 100%의 취업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인 1자격증' '1외국어 습득'은 이 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 재학 중 1인 1자격증 획득을 위해 학과 강의는 물론 유능한 외부 학원 강사를 초빙해 저렴한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 학과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 부족한 능력을 채우고 있다.

또 공무원, 대기업 등의 취업을 위한 취업반, 한전반과 같은 특별반을 운영하고,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통해 배우고 익힌 전공분야의 국제적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수시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 소정의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고, 전임교수들의 연구과제 수행을 돕는 재학생들의 연구생 제도를 이용해 재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전문화된 연구를 통해 발전시키고 장학금의 보너스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다. 이 학과는 한국의 전기공학 연구의 중심인 한전 전력연구원, 전기연구소 및 원자력 연구소 등과 연계해 인력 교류 및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연구소에 파견해 인턴사원으로 근무케 해 전공 연구 능력을 높이고, 연구소는 관련된 신기술들을 대학측과 연계해 연구·개발하고, 학위를 수여해 고급인력 양성에 힘을 쏟을 수 있다.

중부대 전기전자공학과의 톡특하고 내세울만한 제도가 졸업 후 졸업생들에게 실시하는 '리콜제도'이다.

졸업생들에게 졸업 후에도 다시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산업체와 졸업생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고 있다.

학생들의 특별활동과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다. 현장 중심 교육의 일환으로 일년에 두 번씩 현장 실습 및 특별강연을시행하고 산업체 및 연구소와의 인턴십 및 인력교류 협정에 힘쓰고 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취업을 위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도 이 학과의 자랑이다. 학과 명칭 그대로 전기·전자 분야의 두 부분으로 나눠 교수진이 구축돼 있다. 교수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전기·전자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주)넷피아 등에서 근무한 현장경험을 익힌 교수진도 갖추고 있다.

"조직·업무변화 고려한 커리큘럼"

조광래 경찰경호학과장

- 학과의 자랑

지난 10년 전 우리 학과가 개설됐을 때는 다소 생소한 학과로 인식했지만 최근 들어 공공 치안 및 민간 경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인기학과로 성장하게 됐다. 내실있고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 사회에 필요한 엘리트 경찰경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한 결과 현재 취업률 100%를 자랑하고 있다.

- 학과의 미래비전

사회가 급변할 수록 갈수록 치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엘리트 경호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치안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기업에서도 사경비업체에 대한 . 관심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경호학과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비전은 어느학과보다 상당한 비전이 있다고 자신한다.

- 학과의 커리큘럼

경찰경호학은 크게 경찰학과 경호학, 민간경비학, 기계경비, 무도학으로 나눈다. 경찰학에서는 치안정책, 형법 등을 배우며, 경호학에선 경호정보수집 분



석론 등을 탐구하게 된다. 민간경비학은 민간조사론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탐구하며, 무도학은 경호무술론, 연행체포술, 경호체력지도법 등을 익히게 된다.

- 앞으로의 계획

올해로 학과가 설립된지 10년이 된 만큼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순수이론보다 경찰 업무 수행에 연계된 교육, 조직과 업무변화를 고려한 커리큘럼으로 전국 최고의 경찰경호학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신재생에너지 연구 허브로 우뚝"

박재준 전기전자공학과장

- 학과의 자랑

전기공학 분야는 다른 전공분야와는 달리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와 같이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는 자격증이 있다. 이러한 자격증을 학생들이 100% 모두 취득함으로써 취업에 유리하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우리 학과의 교육방침이 있다면 바로 인성교육이다. 아무리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도 평소 예의범절이 없다면 모두 허사이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 학과의 미래 비전

기존의 전기공학에서 가져왔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나노재료 및 신재생에너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부대학교가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예방진단분야, 신재생에너지, 나노절연재료에 관련된 연구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이를 연구허브로 발전시켜 관련분야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것이 목표다.

- 전기공학의 현안

전기공학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기술



인력의 직접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력의 국제화 부분을 대학 측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해 향후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술 교류 및 인프라의 확보가 시급하다.

- 앞으로의 계획

현재 수도권 대학들의 강세로 지방대학에서의 인재 발굴 및 육성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중부대학교에서는 대학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과 구성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이를 극복해 국내 최고의 학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충청일보 창간 63주년 기념 특별기획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콘서트

'더 타임머신'



LEESEUNGCHULCONCERT

2009.1.3 PM4:00/8:00 청주 실내체육관

겨울의 눈이 녹아들고, 사랑에 녹아드는 1월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이 드디어 청주에 오다 !

이번 콘서트는 2009년 1월 3일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며 지난 5월 서울 야외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청주에서 다른 지방 투어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그의 명성에 걸맞은 다채로운 광경들로 관객을 찾아간다!
인연을 만들고, 사랑한다 소리치는 그의 멜로디와 감미로운 목소리는 평생 사랑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살며시 눈을 돌려 이번 공연을 통해 사랑하는 연인에게 혹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랑의 마음을 함께
이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그에게로 가자. 그리고 마음껏 빠져들자. Fall in…

문의 043-278-5555 1588-4446

bass guitar wonhyeok choi) guitar changgon park) drum sanghoon lee) keyboard gwangil go) saxophone yongsoo kim) percussion hyunjoon kim

주최 충청일보 기획 planWIZ co.LTD 제작 CJ ENTERTAINMENT 예매 콘서트랜드 1588-4446 인터파크 1544-1555 옥션티켓 1566-1369

예매수수료없는 가장좋은자리 검색창에 콘서트랜드 를 쳐보세요!!